

KIA ‘3포수 체제’…한승택 “나도 김호령처럼”



KIA 타이거즈 포수 한승택이 엔트리 확대에 맞춰 2일 엔트리에 등록됐다. 수비 안정화에 역할을 하게 된 한승택은 퓨처스 리그에서 준비한 타격에서의 역할도 다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수비 안정화·전력 다양화 기대 “내 것을 만들겠다”
윤도현 부상 복귀… ‘고졸 루키’ 김태형 등도 콜업

KIA 타이거즈 포수 한승택이 9월 시험무대에 오른다.

KIA는 9월 엔트리 확대에 맞춰 2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5명의 선수를 콜업했다. 포수 한승택, 내야수 윤도현, 외야수 정해원과 함께 ‘고졸 루키’ 투수 김태형·이성원이 엔트리에 등록됐다.

수비 도중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던 윤도현은 부상에서 회복해 그라운드로 복귀했고,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온 정해원도 5월 30일 KT전에 이어 다시 한번 1군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6월 24일 키움전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른 뒤 1군 3경기에 출전했던 김태형도 엔트리 확대와 함께 어필 무대를 갖게 됐다. 또 다른 우완 고졸 신인 이성원은 처음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젊은 피’들을 중심으로 엔트리를 보강한 KIA는 한승택으로 안방 자리에 안정감을 더했다. 한승택은 KIA 포수 중 수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다.

KIA는 한승택의 가세로 ‘3포수 체제’를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수비 안정화와 전력 다양화를 위한 카드로 선택된 한승택은 기대감으로 남은 시즌을 바라보고 있다.

한승택은 지난 5월 13일 롯데전을 끝으로 올 시즌 1군 12경기 출전에 그쳤다. 20타석에 나온 한승택은 포수 마스크를 쓰고 50이닝을 소화했었다.

한승택은 “내 것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기량을 키우고, 콜업을 기다렸다.

한승택은 “타격, 수비에서 내 야구를 확실하게 만드는 데 노력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많은 시도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실수도 많이 생각했다. ‘블로킹할 때 공이 이 방향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해볼까’, ‘송구할 때 어떤 느낌으로 던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도를 해 봤다. 타격에서도 초구, 스트라이크 다양

하게 쳐보고 투수들의 유형에 맞춰 존을 설정해서 대처도 해봤다”며 “나의 메커니즘도 메커니즘이지만 투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했다. 120타수 정도 소화했는데 투수에 맞춰 공격하는 법을 시도했다. 1군에서는 많은 타석에 못 나가니까 못 했던 것들 해봤다”고 설명했다.

기다림은 길어졌지만 조금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한승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해보고 야구를 그만두자는 생각이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했으면 자기 것은 있어야 한다. 1군 주전 선수들은 다 뭔가가 있다. 지나고 보니 내 것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2군에서 시합을 뛰면서 내 것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며 “노력을 하면서 좋아진다고 생각했다. 물론 야구가 어렵고, 1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성장한다는 게 느껴졌다. 퓨처스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는데 1군에서 이렇게 경기를 계속 뛰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승택은 올 시즌 퓨처스 43경기에 나와 118타수 44안타, 0.373의 타율을 기록했다. 2개의 홈런으로 30타점도 올리는 등 약점이었던 공격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냈다.

한승택은 “이제는 잘 해야 한다. 결과를 내야 하지만 일단 하는 것 잘하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과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호령의 반전 타격도 한승택에게는 동기 부여가 됐다.

한승택은 “호령이 형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아니까 언젠가는 잘할 줄 알았다. 노력하면 기회가 있고, 결과가 조금이라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호령이 형 활약을 보면서 나도 힘을 더 넣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20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축축장군기와 황기람기 준우승을 차지한 호남대(왼쪽)와 광주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 축구 ‘전성시대’

광주FC 구단 첫 코리아컵 결승행…광주대·호남대·금호고 전국대회 준우승

광주 축구 ‘전성시대’가 열렸다.

‘형남’ 광주FC가 구단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에 성공하는 등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아우’ 광주대·호남대·금호고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달성했다.

광주대와 호남대는 지난 31일 경남 합천에서 끝난 제20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나란히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연맹전은 60개팀이 참가하면서 황기람기와 축축장군기 2개 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이승원 감독이 이끄는 광주대는 황기람기 2위를 차지했다.

광주대는 무실점 기록과 함께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한 뒤 강원 상지대를 1-0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경북 대구대와 1-1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대는 승부차기에서 5-4를 기록, 준결승에 진출했다. 경희대와의 대결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결승 무대를 밟은 광주대는 단국대와의 승부에서 0-2로 지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인수 감독이 지휘하는 호남대는 ‘승부차기’ 혈투를 펼치면서 축축장군기 준우승을 이뤘다.

호남대는 2승 1무의 전적으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뒤 연이어 승부차기에 나섰다. 조선대와의 16강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호남대는 승부차기에서 5-4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이후 부산동명대, 서울순복음총회신학교와의 승부에서도 연달아 승부차기를 펼치며



광주FC U18 금호고가 2025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수원삼성 U18 매탄고와의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준우승을 기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서 결승까지 진출했다.

강호 대전한남대와 결승에서 만난 호남대는 후반 추가 시간에 조우령에게 골을 내주면서 0-1패를 기록,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한남대는 호남대를 꺾고 대회 4연패에 성공했다.

최수용 감독이 이끄는 광주FC U18 금호고는 2025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준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금호고는 전반기 리그에서 포항제철고, 울산현고, 영생고를 누르고 리그 1위에 오르면서 왕중왕전 무대에 올랐다.

리그 1-2위를 차지한 64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금호고는 2승 1무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32강에서 ‘우승후보’ 평택 진위FC를 3-1로 꺾은 금호고는 8강에서 올해 춘계 전국 고등축

구대회 우승팀인 부산 아이파크 U18 개성고를 만났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정규민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김운호, 김용혁의 골이 연달아 나오면서 3-0승리를 거뒀다.

인천 부평고와의 준결승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금호고는 승부차기에서 5-4로 앞서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수원삼성 U18팀인 ‘전통의강호’ 매탄고와의 맞대결로 전개됐다. 금호고는 전반 13분 수비수 이수빈이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후반 초반 최다훈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1-1로 경기가 마무리 되면서 두 팀은 우승컵을 놓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금호고는 4-5로 지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버풀이 1억2500만파운드(2358억원)의 이적료를 들여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영입한 알렉산데르 이사크. /연합뉴스

EPL 여름 이적시장 5조원…역대 최대 ‘돈잔치’

전년비 52.3% 늘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5조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국 BBC는 2일 EPL 클럽이 6월 초 개장한 여름 이적시장에서 현재까지 30억파운드(약 5조 6640억원)를 지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이적료 총액인 19억7000만파운드보다 52.3% 증가한 수치로,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프랑스 리그앙, 이탈리아 세리에A가 이번 이적시장에서 쓴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번 EPL 이적시장은 현지 시간 1일 오후 7시에 마감됐다.

리버풀은 마지막 날 1억2500만파운드(2358억원)의 이적료를 들여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골잡이 알렉산데르 이사크를 데려오는 ‘빅딜’에 성공했다. 영국 역대 최고 이적료다.

이사크를 내보낸 뉴캐슬은 브렌트퍼드로부터 공격수 요안 위사를 5천5백만파운드(1037억원)에

데려왔고, 풀럼은 구단 최고 이적료인 3460만파운드(652억원)를 물고 우크라이나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브라질 원어 케빈을 영입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벨기에 출신 골키퍼 세네 람덴스를 로열 앤트워프에서 10810만파운드(341억원)에 데려왔고, 애스턴 빌라는 맨유의 제이든 산초와 리버풀 미드필더 하비 엘리엇을 각각 임대로 영입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가장 화끈하게 지갑을 연 구단은 리버풀이었다. 4억1500만파운드(7825억원)를 투자했다.

첼시(2억8500만파운드), 아스널(2억5500만파운드), 뉴캐슬(2억5000만파운드)이 차례대로 리버풀의 뒤를 이었다.

이 중 첼시는 선수 이적 시장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며 2억8800만파운드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순 지출은 고작 300만파운드에 그쳤다.

반면 아스널은 선수 매각으로 겨우 900만파운드를 벌어들여 순 지출 2억4600만파운드를 기록했다. 순 지출 2억2800만파운드를 기록한 리버풀보다도 더 큰 금액이다. /연합뉴스